

교회소식

청년부 여름수련회가 13-15일 <개혁자들>의 샘터(양평 소재)에서 '섬과 기도 그리고' 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무더운 여름에 시원 말씀을 암송하며 지내보십시오. 마음속에서 새로운 기운이 솟아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창 49:8-12

오늘 식당 봉사 : 박혜경 조항미 김민화 윤형식 이선화 차혜심 홍성식 박석희
 다음 주 식당봉사 : 고숙이 오송경 이준립 한양미 정은선 한선희 유상진 황현성
 오늘설거지봉사 : 2남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 3남선교회
 커피 판매 봉사 : 5남선교회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4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의
 주님의
 오
 모으로
 상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강림 후 제 12주]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김재흥 목사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주님 나라는(×3)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 경배의 찬송 21. 다 찬양하여라 다 함께
-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쉼 곳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무더운 날씨로 일상은 더욱 버겁고 하루라는 시간이 힘겹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주님, 땀이 흐르고 한층 느려진 우리의 발걸음 위에도 함께해주십시오. 정치 없이 떠도는 발걸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하루하루가 구도와 순례의 길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욕망의 노예가 되어 폭주하듯 살아가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의 이기적인 질주가 다른 이들의 삶을 해치고 있습니다. 삶의 속도를 늦추고 주위에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을 살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의 나아감과 성취가 누군가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일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 위로의 말씀 요15:14,15 인도자
- ♣ 교 독 문 41. 시편 97편 다 함께
-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함께

2부목회기도 김기석 목사

2부응답송 찬양대

2부찬양 370.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 함께

- ♣ 성경봉독 렘 7:1-7 I. 인도자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2부찬양 언젠가 나의 기도 찬양대

말씀 성전 문 앞에 서서 외치라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함께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석남	강세기	이소애	권미숙	권미정	김경혜	김나름	김남종	오복선	김린
김성순	김애경	김영희	김인걸	문영혜	김일랑	이은옥	김재민	최희영	김정선
김지현	김현동	유정윤	김해진	김희선	남명진	김애정	민지훈	박규석	박경선
박옥순	박창운	허정윤	방문성	박혜은	방민배	송순은	송형운	하미림	정국노
이은미	안종일	정현주	유상진	유은정	유희준	유지은	송성윤	김윤정	이재삼
김민화	이범석	류정욱	이시경	이완구	이왕준	송상경	이용현	최연실	이재삼
전정현	이종금	임주빈	최현광	임형욱	장병준	박소현	조영지	장재영	김재원
정아름	정연희	정완수	김재광	임형호	장병준	박소현	조지연	최옥분	최원
김희천	한상균	한완식	김정자	홍소형	홍순복	홍춘수	황현성	이오	

감사헌금

강석남	강세기	이소애	권미숙	김대규	김양태	김재흥	최희영	김진우	임미진
김해선	박문수	박병구	김인순	박재영	이현정	안정준	유병철	박숙영	이고임
임형욱	장기욱	정복순	정윤성	서효진	정현숙	최원화	추은총	한인철	무명17

녹색꿈헌금

김영호 김창숙 김은종 이수자 무명6

생일감사헌금

권미정

속명	인도자	모일 곳	속명	인도자	모일 곳
예루살렘	박성희	방학	청파1속	김재흥	교회
안디옥	최경미		청파2속	송형운	
가나안	장영숙		청파3속	하현철	
베다니	박홍재		청파4속	김정민	
시온	권미숙		청파5속	장영숙	
에베소	백혜숙		청파6속	신진식	
빌립보	곽권희		청파7속	김재환	
가버나움	안홍숙		청파8속	이범석	
나사렛	김경혜		청파9속	김인걸	
			청파10속	장영숙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복날

말복이라 식당 안은
 보신하러 온 손님들로 범석인데
 온몸 개개풀리는 땀별 나질을
 熱絲열사 속으로 곳곳이 고개 쳐들고 선
 화단의 저 꽃 이름은 무얼까
 그 아래 목매아지로 배 깔고 엎드린
 황구 한 마리
 내가 묻는 것은 꽃말이 아니라 표 나게
 삼복을 건너는 제각각의 팔자인데
 케케묵은 冊曆책력까지 들추고 나와
 세상은 그런 것이다 한낱이 패이도록 經경 읽어대는
 말때미 저 억센 울음
 저도 애벌의 시간을 견디고 며칠 동안만
 허락받은 그늘 밑의 생생이려니
 넘치도록 그림자 드리운 느티나무 아래 평상에
 늘어앉아 식당 쪽을 흘깃 거리는
 저 노인들도 한때는 어깨가 무너져라
 땀별을 저 날랐으리

- 김명인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신진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윤석철	
장로 : 한완식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휘 : 강석남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김진찬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2부찬 양	새교우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담임목사
공동체 소식	담임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예배드리는 자답게 사십시오. 바른 말과 바른 행실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사십시오. 거짓과 부정함을 버리십시오.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사십시오.	
다함께:	아멘.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릇된 말과 행실 속에 살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기쁘게 삼아 우리의 삶을 고치겠습니다. 이중적인 모습을 버리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 복	담임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청파성서학당 / 강의 : 김기석 목사	낮 집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1부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인도자
	2부	김기석 목사	김인걸 장로	김승현 집사

8월	1부 영접위원	안현숙 최미자		
	1부 헌금위원	진정숙		
	2부 영접위원	박홍재	최철수	김광일 백혜숙 김애순
	2부 헌금위원	하현철 이형숙		

믿음으로 읽는 글

쉽, 안식일에 해야 하는 일

안식일. 요즘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죠. 이를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표현으로 바꾼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노는 날? 쉬는 날? 많은 분들이 ‘노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노는 것도 힘이 들어가죠. 놀고 나면 지치잖아요? 차라리 ‘쉬는 날’이라는 것이 더 본뜻에 가깝다고 생각되네요. ‘쉬는 날’은 어떤 의미에서 생산을 위한 노동이든 놀기 위한 노동이든 기를 써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쉽, 멈춤을 의미하겠지요. ...

안식일은 무엇을 하는 날인가요? 이렇게 물으면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예배드리는 날’이라고 답할 겁니다. 하지만 안식일은 그야말로 ‘쉬는 날’입니다. 십계명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더 바쁘죠. 예배드리랴, 주차봉사에 주방봉사에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하지만, 정말 중요한 안식일의 기본 정신은 ‘쉽’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쉽’을 너무 율법적으로 해석해서 거의 군대에서의 ‘동작 그만’처럼 적용했어요. 몇 걸음 이상은 노동이다. 얼마만큼 이상 무거운 것을 어느 정도 높이로 드는 것은 노동이다. 무엇이 노동이고 무엇이 비노동인지를 구별하고 이를 세부적인 율법조항으로 명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일한 사람들을 정죄하느라, 그야말로 ‘쉴 틈이 없이’ 안식일을 보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창조 노동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중심에 있습니다. 너희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창조 노동을 하고 나는 일곱째 날에 쉬었다. 쉽이란 그런 거다. 나를 닮은 생명인 사람아, 너도 그렇게 살면 좋겠구나. 여섯 날들 동안에는 살리는 귀한 창조와 구원의 노동행위를 하되, 일주일에 하루는 온전히 쉬면서 너희 안에 있는 나의 숨결인 루아흐(하나님의 영, 생기)를 느끼며 다시 옛새를 살아갈 힘을 얻었으면 좋겠구나. 너만 쉬지 말고 네 권한

으로 쉽을 허락할 수 있는 모든 생명들 역시 쉬게 하렴.

...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달리 살아라. 심지어 사람들이 봤을 때 ‘어, 저게 뭐야’ 할 만한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 땅에 지금까지 없었던 대안적인 삶을 살아라. 그런 사건을 만들어라! 이런 부탁을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체뿐만이 아닙니다. 자동차조차도 브레이크가 없는 동력이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그 질주는 막을 길이 없거니와 큰 사고를 유발합니다. 브레이크를 때때로 걸어주어야 합니다. 바로 그 브레이크를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7년에서 1년을 걸고서 멈추라는 말씀은 권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사실 웬만큼 수도자적 영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일상을 바빠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많은 경우 일상을 멈추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들,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못 쉬고 생명체들이 못 쉬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시니까 이걸 나를 위한 것이다. 나의 계명이다. 그날은 내 날이다. 너희는 건드리지 마라. 너희 날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 안식일에 쉬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느끼면서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나? 내 삶이 하나님의 방향성 안에 있나? 이것을 느끼려면 일상에서의 삶을 놓고 쉬며 거룩을 느껴야 합니다. 나만 쉬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쉬게 할 수 있는 내 주변의 이웃들조차 온전히 쉬게 해야 합니다. 내 율타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쉬게 해주어야 합니다. 말로만 하면 안 될 일입니다. 쉴 여건을 함께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 율타리의 모든 생명이 매 주일이면 하루의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백소영, 「삶, 그 은총의 바다」(꽃자리) 중에서